

여성복식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의 변화

김선화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에로티시즘은 기본적으로 성(性)을 바탕으로 하지만 육체적인 본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감성이 함께 승화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에로티시즘은 심리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이다. 인간이 에로틱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중의 하나인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에로틱하다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보는 사람의 시각적인 상상력이 결합해서 생기는 감정이다.

인간은 단순히 노출된 특정한 신체부위에서만 아니라 그 신체를 감싸고 있는 복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에로틱하게 느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에로틱하게 느끼는 특정신체부위를 노출하고 나머지 신체 부위는 천으로 감춤으로써 노출된 신체부위가 더 강조되어 에로틱하게 보일 수도 있고, 천으로 감싸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감싸느냐에 따라 에로틱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복식과 에로티시즘과의 관계는 인간의 복식착용동기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 착용동기설 중에서 비정숙성설(일명 이성흡인설)과 신체장식설 등이 에로티시즘과 관계가 있다. 비정숙성설은 과거 원시인이 종족번식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종족 번식과 관련된 생식기 부분을 보호하거나 과시하려고 가리기 시작하였다가, 이것이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부위가 되었다는 설로 자손을 번식시키고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에로티시즘을 추구해 왔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신체장식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나르시시즘과 관련이 있는 설로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고 매력있게 장식하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의지로 복식을 착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이성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복식 역사상으로 볼 때, 남성복식보다는 여성복식에 에로티시즘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긴 역사 동안 형성되어 온 남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오랜 세월동안 남성들이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인 삶에 종속되어 왔던 여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아름다워서 남성들의 눈에 잘 띄어야 했고, 그 수단으로 복식이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느끼는 에로티시즘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대나 문화에 따라 의복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Westermarck(1922)의 '성감대이동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여성의 신체는 어떠한 부위라도 이성에게 매혹적이며, 시대에 따라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부위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부

위에 따라 의상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행이란 에로틱한 부위의 이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떠한 부위에 대한 남성의 관심이 사라지면 그 유행은 끝나는 것이고, 새로운 부위로 옮겨가 그 부위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바뀌어 가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해 여성의 의상은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시대에 따라 특정 신체부위를 선택하여 끊임없이 노출과 은폐를 되풀이하면서 그 신체부위를 강조해 왔다는 설이다.

이렇듯 오랜기간 동안 여성의 복식은 에로티시즘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그 표현방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왔지만, 결국은 크게 나누어 보면 노출과 은폐이고, 은폐의 경우 간접노출과 강조의 형태로 나누어져 왔다.

그동안 패션과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현대복식에 국한하여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본 고에서는 과거에서 현대까지 여성 복식사 전반에 걸쳐서 디자인 측면에서 여성 신체의 각 부위에 에로틱하게 표현된 방법 등을 직접노출, 간접노출, 강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접 노출

직접적으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노출함으로써 에로틱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과거부터 현대까지 끊임없이 사용되어 왔고, 직접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목, 어깨, 가슴, 등, 다리, 배꼽 등이었다.

목에서 시작하여 어깨, 가슴까지의 노출은 복식역사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신체부위보다도 노출이 많이 되어 왔다. 여성의 목은 남성보다 가늘고 길어서 연약함에서 오는 에로틱함을 나타내는 부위여서 버마 고지대에서 사는 카렌부족의 파다웅파는 아직도 목에 고리를 끼워 긴 목을 만드는데 열중한 다. 서양 여성복식 역사를 보면 종교적이고 정숙을 강조하던 시대를 빼고는 대부분 시대에서는 여성의 목을 노출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 현대에 와서도 여성의 가늘고 긴 목을 나타내기 위하여 네크라인을 좁고 깊게 파는 디자인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여성의 목을 에로틱하게 표현한 대표적인 민속복이 한복과 기모노이다. 한복과 기모노는 머리를 올려 입음으로써 목의 가늘고 긴 노출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에로틱하게 보인다.

목에서 시작하여 어깨를 거쳐 가슴으로 이어지는 노출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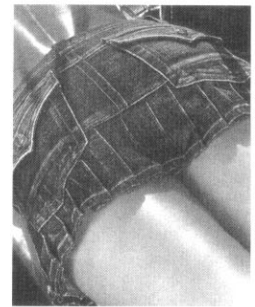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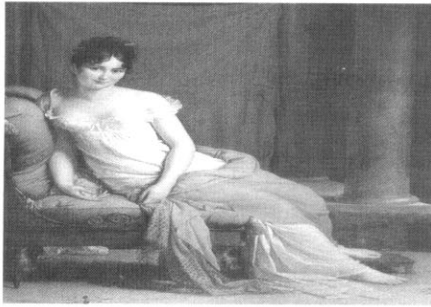


Fig. 1. 1805년 엠파이어 스타일(정홍숙, 2005). Fig. 2. 1955년 존 갈리아노 Fig. 3. 1932년 등이 파인 Fig. 4. 초미니스커트(FasionBiz, 이브닝드레스(Gerda, 1999). 드레스(정홍숙, 1998). 2004. 7).

행의 특성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번 노출이 시작되면 노출부위가 점점 과감해져 가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특히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는 가슴부위가 이슬이슬한 정도로까지 노출되기도 하였다(Fig. 1). 여성의 가슴은 모성의 역할 뿐만 아니라 여성성의 대표적인 심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식을 입고 표현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노출되고 감춰지는데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감춘다고 해도 짧은 시기(1920년대와 1960~70년대)를 빼고는 가슴의 라인을 살리는 디자인으로 갔던 시기가 대부분이었다. 기원전 2500년경 크레타 미노아 여인들의 복식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완전 노출되었던 시기도 있었고, 사회가 쾌락적으로 흘러갈 때에는 유두가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이슬이슬하게까지 노출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와서도 특히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가슴 라인이 보일 정도까지의 노출은 쉽게 볼 수 있다(Fig. 2).

여성의 등은 남성보다 더 휘어져 있으며 척추의 갈라진 홈이 굴곡있게 내려가는 모습은 상당히 에로틱하게 보인다. 이러한 등의 노출은 여성의 신체에 복식이 걸쳐진 이후 거의 감추어져 왔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이브닝드레스 등에서 노출되어 에로틱함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데(Fig. 3), 최근에는 이브닝드레스 외에도 여름에 여성들이 등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오랜 시기동안 치마 속에 감추어져 왔던 발이 19세기 중반에 노출되기 시작하다가 20세기 들어와서는 다리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부위가 처음에 노출될 때는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더욱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 따라서 20세기 초에는 무릎 밑에서 머물던 치맛단이 60년대에 무릎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미니스커트의 길이는 더욱 짧아져서 몇 년 전에는 일명 ‘똥꼬치마’라는 초미니스커트가 유행하여 여성의 다리에 대한 에로틱한 미의 자량은 계속되고 있다(Fig. 4).

과거에는 아랍권 등의 벨리 댄서들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허리와 배꼽의 노출이 현대에 와서 배꼽티 등이 유행하면서 젊은 층에서 선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5). 여성의 등그스런 배와 그 위에 있는 질구와 같은 배꼽은 여성의 성기와 가까워서

더욱 더 은밀하고 에로틱한 느낌을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오랜 시기 동안 감추어져 왔던 부위였다. 그러나 최근의 유행하는 배꼽티로 인해서 배꼽을 수직의 움푹하면서 흘쭉한 모양으로 성형수술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 간접노출

천으로 신체를 감싸고 있지만 신체에 완전히 밀착시킴으로써 바디라인을 그대로 나타내거나 비치는 천으로 신체의 굴곡을 드러내어 에로틱하게 보이는 방법, 그리고 한 쪽에 트임을 줌으로써 움직일 때마다 그 트임 사이로 인체의 굴곡이나 피부가 보일 때, 상대방에게 주는 에로틱한 느낌은 완전히 노출되어서 느끼는 에로틱한 느낌보다는 처음에 주는 강렬한 정도는 떨어지겠지만 더 오래 지속되고 은근하다. 특히 간접노출을 시켜 에로틱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재질과 색채의 영향이 크다. 천 연섬유 중에서도 동물성 섬유에 해당하는 실크, 모피, 가죽 등이 대표적인 에로틱 소재이고 직조방법에 따라 레이스, 시폰 등은 시스루 소재로 사용된다. 색채로는 검정과 빨강이 대표적인 에로틱 색채라 할 수 있다. 특히 빨강의 경우는 다른 색을 섞을 때에도 그 에로틱한 감정은 남아 있어, 흰색을 섞은 분홍이나, 노랑을 섞은 주홍, 파랑을 섞은 보라, 검정을 섞은 자주 등은 섞은 색에 따라 나름대로의 에로틱함을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재질과 같이 조합하느냐에 따라 에로틱한 감정은 고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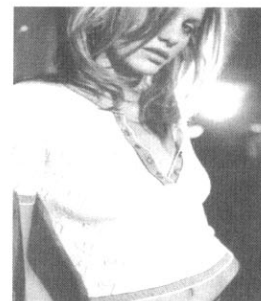


Fig. 5. 배꼽티(FashionBiz, 2004. 7).

또한 여기에 디자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에로틱함은 절정에 이를 수 있다.

밀착을 이용한 방법은 12세기 때, 몸통과 어깨, 소매까지 꼭 맞게 입었던 시대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찾아 볼 수 있었다. 20세기 초에 유행하였던 ‘스웨터 걸’(Fig. 6)은 꼭 맞는 신축성 있는 스웨터를 입음으로써 풍만한 상체의 바디라인을 그대로 나타내 에로틱하게 보였고, 1960년대부터 젊은 층에서 유행한 진바지는 hipline을 그대로 표현하여 에로틱함을 나타낸다(Fig. 7). 영화(예, ‘배트맨 리턴’에서 켈트웬의 의상)에서 에로틱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검정색 가죽을 사용하여 몸에 밀착시킨 의상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트임을 이용한 경우도 16세기 초에 사용되었던 슬래쉬 기법 외에는 거의 보여지지 않다가, 20세기 들어와서 이브닝드레스 등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현대에 와서는 스커트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Fig. 8). 트임이 사용되어 에로틱하게 보이려는 신체부위는 주로 다리이고 최근에는 티나 블라우스 등에 트임을 주어 팔을 에로틱하게 보이게 하기도 한다.

시스루 천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여성의 신체를 에로틱하게 표현했던 시대는 고대 이집트시대(Fig. 9)에서 찾아 볼 수 있고, 이것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잠깐 나타났다가(Fig. 10) 1960년대 디자이너 앙드레 꼬레쥬에 의해 다시 나타났다(Fig. 11). 하지만 이 시대에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신체를 대중에게 보여 주는 것이 너무 쇼킹하여 일반화되지 못하였고, 1980년대에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시 소개되어 1990년대에 이

르러 일반화되었다(Fig. 12).

3. 강 조

복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인체를 강조하는 방법으로는 그 신체 부위 자체를 과장시키거나 또는 억제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부위를 억제함으로써 옆의 부위를 강조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과장이나 억제란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나타내게 하는 밀착과는 달리,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분을 확대시키거나, 강제로 억압하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스러움이 잃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스러움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마를 따라 왔다.

과장이나 억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한 쪽을 억제함으로써 과장의 효과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장이나 억제는 고대 크레타 복식에서 잠깐 찾아 볼 수 있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어 오렌기간 동안 여성의 신체를 속박해 왔다. 특히 속박을 많이 받았던 신체 부위는 허리와 발이었고, 가슴과 hip은 상대적으로 더욱 과장시켰다. 이렇게 신체의 한 부분을 과장시키거나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보조도구가 사용되었다.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브래지어였다. 브래지어는 20세기 초에 처음 등장하였고, 20세기 중반과 후반에는 원더브라가 유행할 정도로 가슴을 강조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성의 가슴은 여성성을 대표하는 부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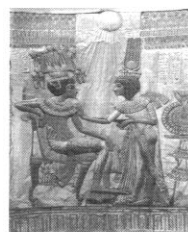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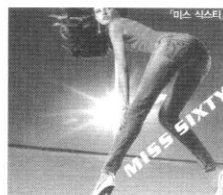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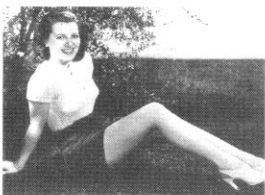


Fig. 6. 스웨터걸(정홍숙, 2005). Fig. 7. 미스 식스티 진바지 (FashionBiz, 2004. 7). Fig. 8. 1998년 프라다 기성복(FashionBiz, 2004. 7). Fig. 9. 이집트 투탕카멘 왕과 왕비(Putnam, 1995). Fig. 10. 비치는 천으로 만든 chemise gown(정홍숙, 2005).



Fig. 11. 1968년 앙드레꼬레쥬의 시스루 록(Gerda, 1999).

Fig. 12. 1998년 시스루록(Gerda, 1998).

직접적으로 완전 노출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부분 노출이었다. 노출될 때, 자연스럽게 노출되기도 하였지만 허리를 조이는데 사용되었던 콜셋이 가슴을 밀어 올리면서 가슴의 굴곡을 더욱 강하게 보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콜셋 안에 울 패드를 넣어 가슴을 풍만하게 보이기도 하였다.

여성의 hip은 생식기능을 상징함과 동시에 성적 매력을 지닌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1920년대를 빼고는 크고 탄력 있는 hip이 선호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hip을 과장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보조도구로 대표적인 것이 파딩게일과 크리놀린, 파니에 등이다.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는 파딩게일(Fig. 13)로부터 18세기의 파니에와 19세기의 크리놀린은 hip의 모양을 엄청나게 과장시켰고, 19세기 말에는 베클페드를 사용하여 hip 뒷부분을 과장시키기도 하였다.

허리를 속박하는 것은 가는 허리에 대한 갈망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슴과 hip이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여성들의 가는 허리에 대한 추구는 시대를 초월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특히 16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콜셋이 등장하여 허리를 조이기 시작하였는데(Fig. 14), 시간이 흐를수록 허리를 조이는 정도가 지나쳐서 신체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부에서는 늑골제거수술까지 강행하였다. 콜셋의 무리한 조임으로 생긴 신체 변형은 결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내장기관을 가슴 쪽으로 밀어 올려 호흡기관까지 압박함으로써(Fig. 15) 호흡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하여 많은 여성들이 고생하였거나 단명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었다(Horn·Gurel, 1981). 이는 그 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을 따르기 위

해 신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단축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했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허리에 대한 속박은 20세기 초반에 잠시 벗어났다가 20세기 중반에 다시 나타나 가는 허리를 더욱 가늘게 보이려고 노력하였다(Fig. 16).

신체 부위 중에서 발에 대한 억압은 작은 발을 선호해서 시작되었다. ‘신데렐라’에서 작은 발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나 한국의 ‘콩쥐팥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설화가 있는 것을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작은 발을 미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경우 17세기에 작은 발을 선호하여 linen으로 된 테이프로 발을 세게 조여 작은 구두에 억지로 밀어 넣었고, 나중에는 새끼발가락 하나를 절단하면서까지 작은 신발에 발을 맞추었다(Fig. 17).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선시대에 여성들의 발을 어릴 때부터 작은 버선에 맞추었고, 중국에서는 20세기 초까지 거의 10세기 동안에 걸쳐 여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발을 천으로 감아 발의 성장을 정지시키는 전족풍습이 이어 내려왔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발의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지발가락은 놔두고 나머지 네 발가락을 발바닥 중앙부분으로 밀어내려 싸맴으로써 발의 형태가 아주 변형되게 하는 것으로(Fig. 18), 일종의 남, 여 성기 구실을 하게 하여 가장 에로틱한 신체부위로 여겨졌다.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작은 발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작은 발에 체중을 싣게 되면 신체가 긴장이 되면서 결국은 엉덩이가 올라가고 배는 들어가는 등 신체의 변형이 오게 되고, 걸음걸이도 섹시해지는 등 에로티시즘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과거의 여성들은 신체의 일부를 구속, 변형하면서까지 에로틱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였고,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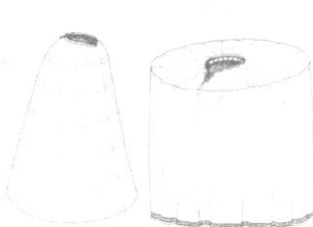


Fig. 13. 파딩게일(정홍숙,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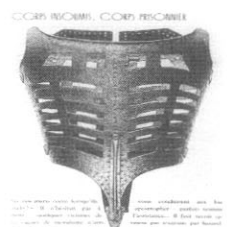


Fig. 14. Corset (이의정 & 양숙희,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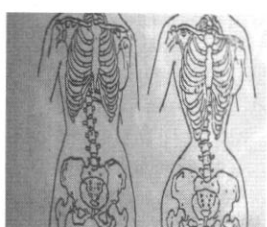


Fig. 15. 콜셋을 착용하지 않은 때(좌)와 착용했을 때(우)의 신체모습(Horn & Gurel, 1981).



Fig. 16. 1947년 크리스찬디오르의 뉴욕(New York, 1947).



Fig. 17. 로코코시대의 구두(정홍숙,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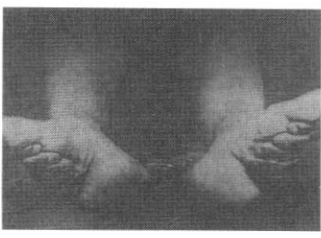


Fig. 18. 전족의 벗은 모습(이의정 & 양숙희, 1987).

함으로써 눈에 띄어 사회적으로 강한 자에게 선택되어지는 것만이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 복식에서의 에로티시즘의 표현은 과거에는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대담하게 표현되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과거 복식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방법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그 의미도 남성에게 선택되어 지려는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이에게 과시하려는데 그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과거와는 달리 자신들도 에로틱하게 보이기를 원하여 현대에서는 남녀 모두 복식을 통해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남성복식에 대해서도 에로티시즘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고찰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참고문헌

- 이의정 · 양숙희 (1987) “페티시즘”. 경춘사, 서울.
 정홍숙 (2005)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서울.

Gerda, B. (1999) Icons of Fashion-the 20th Century-. Prestel: Munich-London-New York
 Horn, M. and Gual, M. (1981) “The Second Skin”. 3rd Ed. Houghton Mifflin Co.
 Putnam, J. (1995) “Egyptology”. Shooting Star Press, Inc. N.Y.
 Westermarck (1922) “His History of Human Marriage”. Macmillan and Co., London.



김선화(Sun-Hwa Kim)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학사, 석사)
 University of Minnesota, USA(Ph.D)
 미국 Sears 백화점 Size Consultant
 서울대학교 Post-Doctor
 현재 :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el: +82-61-750-3683
 Fax: +82-61-750-3680
 E-mail: shkim@sunchon.ac.kr